

# 제주한우 개량성과 및 금후 개량 방향

강 태홍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 장장

## 1. 머리말

제주도에서의 축우사육은 고·양·부의 3성관련 신화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상업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은 타지역에서와 같이 196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주한우는 육지한우 보다 체구가 약30%왜소하나 제주지역 환경(바람, 돌, 진드기)에 잘 적응된 강건하고 온순한 품종으로 역축으로서 높게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1960년을 고비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쇠고기 소비가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우육생산을 위한 육용우로의 개량의 전기가 되었다.

1975년에 국립송당목장이 설립이되고 비교적 열대기온에 적응력이 강한 부라만, 쌈타카트루디스 유품종이 미국에서 도입, 이들과의 교잡에 의한 잡종개량이 30여년간 이루어져 왔다.

제주도내 축우 사육두수 40만두중 제주한우는 불과 80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교잡종이다. 이와같이 잡종화돼 있는 제주 한우우 집단을 앞으로 어떻게 개량해 나갈것인가와 그동안 우리 제주시험장에서 개량방향을 설정,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 2. 개량연혁 및 개량성과

한우 개량협의회가 1960년에 구성이 되어 우리나라 축우개량 방향에 대한 협의와 방향을 모색하는데 크게 관여해왔다.

제주도에서의 축우개량은 1957년 국립 송당목장에 부라만외 육우 품종이 도입되면서 제주시험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량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57년부터 1963년까지는 제주한우와 도입 육우와의 우량교배 조합 선발 시험을 실시하여 부라만 교배조합(306.1kg / 18개월)을 선발했으며 그후 78년까지 외국의 신품종 육성교배 체계에 준해서 제주지역 환경(진드기, 바람, 더위)에 잘 적응하면서 산육능력이 우수한 신품종 기초축을 육성했다(한우개량협의회), 이와 병행해서 1978년부터는 기존 이원교잡종 암소에 샤로레 종용우를 이용한 3원교잡우 생산사업(한우개량협의회)이 이루어져 왔다.

육성 비육시 산육능력은 2원교잡종 455.8kg / 18개월) 3원교잡종 (641kg / 18개월)이 제주한우 396.2kg / 18개월에 대해 15%, 16%의 증체효과가 있었고 사료요구량도 7~8%개선효과가 있었다. 도체율도 61%로 제주한우 (55%)보다 6% 우수하였다.

한국 종축개량 협회 육류등급 기준(안) 자료에 준해 도체등급을 평가해본 결과 육생산량 평가에서 B등급, 육질 평가에서는 2등급이고 육미 검사에서도 4.2~4.5점(6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 3. 금후 제주한우 개량방향

그동안 제주시험장이 육성하여 도내 양축농가에서

절대다수 사육되고 있는 샤로레 3원교접종 (CBK)은 육량과 육질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금후 이들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축선택을 통해 이들 교접종간계획교배에 의해 합성품종 육성이 긴요하다. 이와 같은 합성품종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 등 축산유관기관과 함께 제주한우 교접종 합성품종우량 후보종모우 선택사업과 육종 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표 1)과 (표 2)에 소개코자 한다.

(표 1) 합성품종 육성을 위한 후보종모우 선택

- 기 간 : 1991 ~ 1995
- 공동추진기관 : 제주도, 제주시 험장, 축산사업소, 축협
- 선택방법
  - 1차선택 (생후 1개월) : 농가보유 숯송아지 (CBK) 200두 선정 평가후 우수 송아지 50두 구입 (제주시 험장, 축산사업소 시행)
  - 2차선택 (생후 12개월) : 구입축 50두 당대검정 (외모, 발육성적, 사료 이용성 조사) 10두선택 (제주시 험장, 축산사업소)
  - 3차선택 (생후 18개월) (정액성장) 추가 최우수축 5두선택
- 종모우 활용
  - 정액생산(축산사업소), 인공수정(축협) → 집단개량

(표 2) 육종단지 조성에 의한 합성품종 육성 ('92~ )

